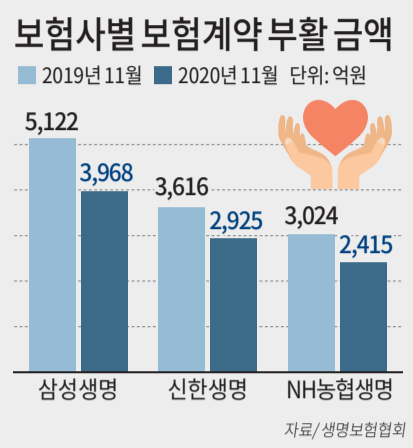


“코로나에 보험금도 부담”

# 생보사, 보험계약 부활 줄었다

가입자, 보험료 연체시 부활 신청  
가계 경제 위축에 부활 움직임 둔화  
보험계약 부활 전년비 8.8% 감소



자료/생명보험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명보험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생보사 보험계약 부활 건수가 줄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부활 신청을 통해 실효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 등을 완납한 뒤 보험사에 해당 제도를 신청하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연령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보험 보장,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계약보다 기존 보험 부활이 혜택이 유리하다.

그럼에도 생보계약 부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위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 24곳의 보험계약 부활 움직임

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생보사 24곳의 누적 보험계약 부활 건수는 12만 9929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규모다. 보험계약 부활 금액도 줄었다. 지난해 11월 누적 보험계약 부활 금액은 4조 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의 보험계약 부활 금액 감소 폭이 1153억 8200만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한생명과 NH농협생명의 보험계약 부활 금액 감소는 각각 691억 1100만원, 609억 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험계약 부활 금액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부활 금액도 2조 32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줄어 들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속 가계 사정 악화로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라고 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고객과 해지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보험부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험계약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험계약 부활 시 고지의무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실효 기간 중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고객은 신계약과 마찬가지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 실효 기간 중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부활 신청 시 알려야 하는데 사유에 따라 부활 요청 거절이나 부담보 등의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금융지주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농협금융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협의회’에서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이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 “ESG경영,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

NH농협금융, 그룹 ESG회의  
사외이사로 ESG 전문가 영입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31일 손병환 회장 주관으로 그룹 ESG 회의체인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ESG경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손 회장의 경영의지가 담겨있다.

농협금융은 지주 및 계열사의 ESG 전담 조직에서부터 최고경영자(CEO) 협의회, 이사회 내 위원회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ESG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큰 관심을 고려해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위원장의 ‘금융회사의 ESG 경영과 투자’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농협금융은 ESG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실행력 강화, 정보 공유·홍보 확대, 추진성과 포상 등으로 계열사를 적극 지원해 그룹 ESG 추진을 견

인할 계획이다.

그룹 차원의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캠페인 ‘ESG 애쓰자’도 발표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친환경활동 애쓰자 ▲탄소배출 감소 애쓰자 ▲사회공헌 애쓰자 ▲나눔과 기부 애쓰자 등 4가지 구호를 통해 내부에서 먼저 임직원 생활 속의 친환경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각 계열사는 ‘ESG 5대 부문, 15개 ESG 추진과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고했다.

손 회장은 최근 치킨가게의 선행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ESG경영 수준이 고객의 소비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며 “이런 현상이 금융상품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농협금융에 ESG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ESG 경영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농협에게는 낯선 길이 아니며, 농협 DNA 속에 녹아있는 ESG 본능을 깨워나가자”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디지털 금융, 퍼스트 무버 기반 마련할 것”

안감찬 BNK부산은행장 취임식  
여신 업무·자산 건전성 개선 기여  
외유내강 소통형 리더십 CEO



안감찬 BNK부산은행장이 13대 행장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1일 부산은행 본점 23층 스카이홀에서 제13대 안감찬 은행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안감찬 신임 행장은 1989년 부산은행 대인동 지점에 입행한 후, 광안동지점장, 감전동지점장을 거쳐 2016년 영업본부장, 2017년 경영기획본부장, 2018년 마케팅본부장, 여신운영그룹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특히 여신운영그룹장을 맡아 여신 업무프로세스 및 자산 건전성 개선에 기여했으며, 외유내강의 소통형 리더십을 가진 CEO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식에서 안행장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흔들리

지 않는 부산은행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 전 부문에 걸쳐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걷어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행장은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WM), 글로벌 부문의 비이자수익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으

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해 나가 은행의 수익 창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B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금융그룹을 신설하고 투자금융 전체 조직을 격상시키는 동시에 그 아래 본부도 2개로 늘려 영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하는 등 운영 효율성도 강화했다.

또 그는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빅테크, 핀테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행장은 “부산은행을 아껴주시는 고객, 주주,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지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부산은행이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 현대해상, 고객 친화 AI챗봇 ‘마임봇’ 선보

네이버에서 바로 챗봇 접속

현대해상이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해상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클로바와 클로바 챗봇(CLOVA Chatbot)을 활용한 고객용 모바일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마임봇’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마임봇은 네이버 모바일 검색결과 화면에 AI챗봇 연결 아이콘이 배치되는 국내 최초의 챗봇 모델이다. 고객들은 현대해상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 검색결과 화면 안에서 곧바로 챗봇 접속이 가능

하다.

고객들은 마임봇에서 보험계약조회, 보험료납입 등 다양한 업무 처리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마임봇은 상담 유형에 따라 챗봇 메뉴 구성이 가능하다. 이미지 형태의 맞춤형 상담 답변을 제공해 쉽고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규원 현대해상 디지털전략본부장은 “네이버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의 챗봇 모델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새롭게 개발된 마임봇을 통해 챗봇에 익숙지 않았던 고객들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 교보생명, 업계 최초 ‘PASS 인증’ 콜센터

PASS 앱으로 본인인증

교보생명이 디지털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보생명은 금융권 최초로 콜센터를 통한 대출 상담 시 ‘PASS’ 앱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대상은 교보생명의 콜센터를

거쳐 진행되는 신용대출 고객이다. 고객은 상담원과 통화 중 바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콜센터를 통한 신용대출은 상담신청, 고객본인확인, 대출가능금액/금리 안내, 본인인증, 대출신청/약정, 대출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본인인증 과정에서 ARS 비밀번호를 사전에 발급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고

객콜라자를 직접 방문해야 해 고객 불편 및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제 통신 3사 가입자라면 누구나 유효기간 3년의 ‘PASS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콜센터에도 모바일 본인인증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비대면 채널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 KB국민銀, 그린웨이브 ESG우수기업 대출

지속가능연계대출 벤치마킹

KB국민은행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KB 그린웨이브(Green Wave) ESG 우수기업 대출’을 출시했다.

‘KB 그린웨이브 ESG 우수기업대출’은 글로벌 선진은행의 지속가능연

계대출을 벤치마킹해 KB국민은행이 선정한 ESG 평가 기준과 내부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ESG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0.4%포인트를 제공하고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우대한다. 대출의 총 지원한도는 1조원이다.

/안상미 기자